미디어/엔터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한상웅
Tel. 02)368-6139 / sangwoung@eugenefn.com

Overweight(유지)

Recommendations

- ✓ 키이스트(054780.KQ)
- ✓ 삼화네트웍스(046390.KQ)
- ✓ 팬엔터테인먼트(068050.KQ)
- ✓ iHQ(003560.KS)

국내 통신사업자의 OTT 경쟁 가세로 콘텐츠 중요성 부각

▪ **디즈니,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OTT 진출 선언 국내 통신사업자와 제휴 확대**

글로벌 미디어 환경은 지난 11일 디즈니의 신규 OTT 사업인 Disney+가 공개된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글로벌 가입자 확보를 위해 아시아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유료방송이 재편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OTT 사업자들과 통신사업자와의 제휴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통신업의 특성상 네트워크 및 결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 유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가 2018년 11월부터 LG유플러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 가입자 증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빠르면 2020년 1분기에 국내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알려진 Disney+도 국내 통신사업자와의 제휴가능성이 높다.

▪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자체 콘텐츠 확보를 통한 경쟁 우위 확보 가능성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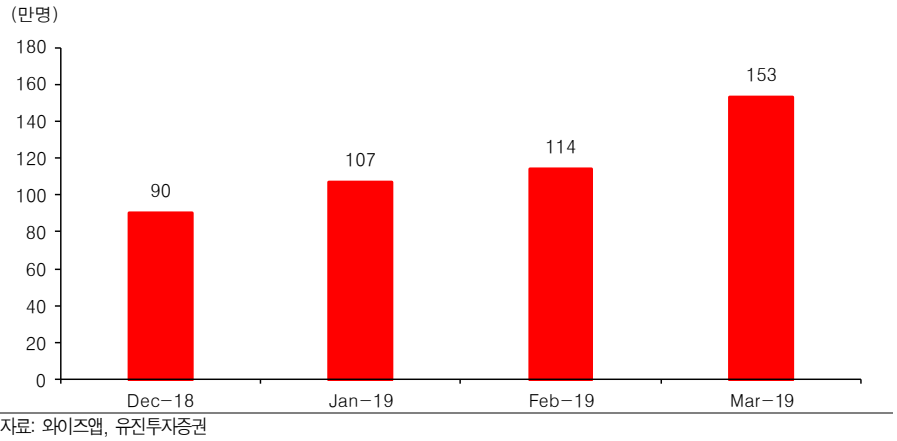
국내 1위의 유료방송사업자인 KT는 OTT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IPTV 1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VOD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개봉되지 않은 할리우드 영화의 단독 공개를 비롯해 어린이, 시니어(50대 이상)을 위한 콘텐츠도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T는 자체 OTT(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OTT(푹)을 통합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디즈니, NBC유니버셜, 소니 등의 해외 주요 스튜디오의 콘텐츠를 추가해 콘텐츠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다.

▪ **킬러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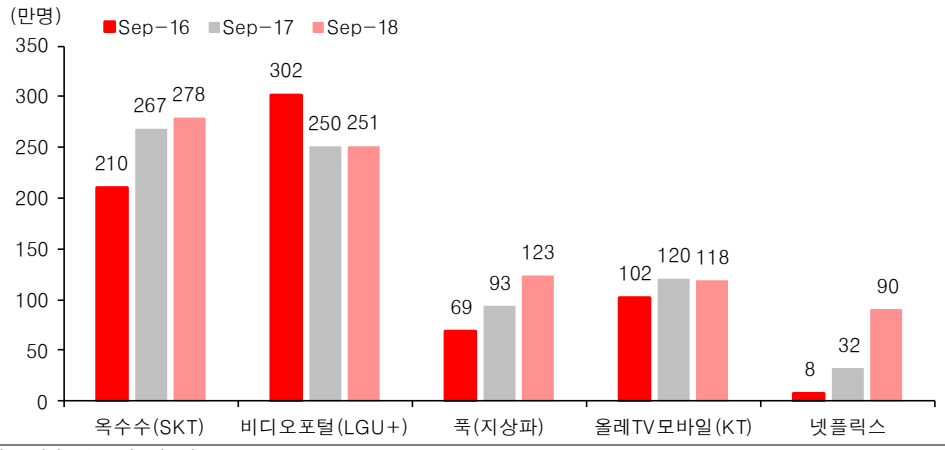
현재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OTT 사업 진출 전략은 글로벌 콘텐츠의 공급을 통한 차별화에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디즈니로부터 확보했던 콘텐츠의 공급이 디즈니의 OTT 사업 진출로 중단됐고, 해당 콘텐츠의 비중도 넷플릭스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외부 조달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OTT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 콘텐츠(오리지널)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미 SKT 및 지상파는 외주제작사를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왔기 때문에 미디어환경의 변화가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 드라마 제작사의 제작 편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키이스트(054780), 삼화네트웍스(046390), 팬엔터테인먼트(068050), iHQ(003560) 등 중소제작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내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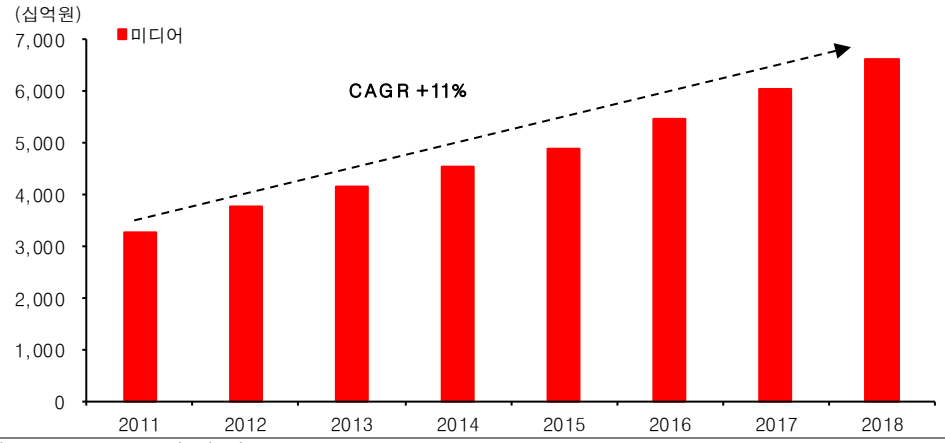
자료: 와이즈앱, 유진투자증권

도표 1 국내 가입형 OTT 사용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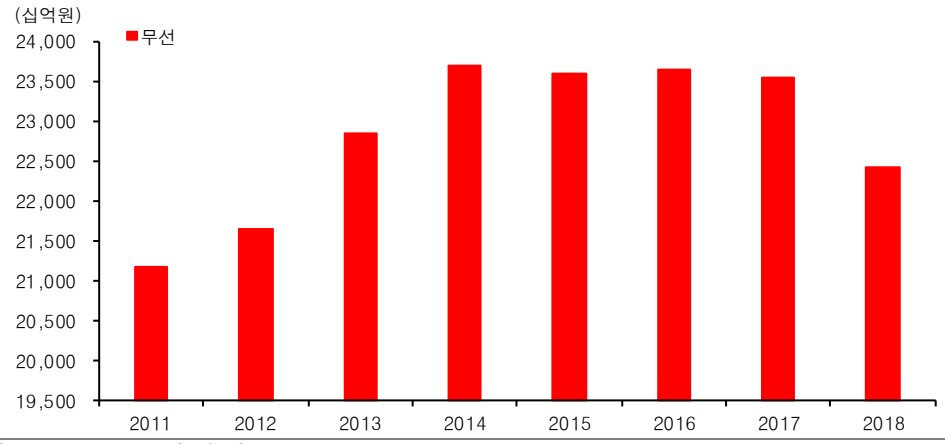
자료: 와이즈앱, 유진투자증권

도표 2 국내 통신 3사의 미디어 사업 부문 매출액 꾸준한 상승



자료: SKT, KT, LGU+, 유진투자증권
주: SKT는 SK브로드밴드, KT는 미디어/콘텐츠, LGU+는 IPTV 매출의 합산임

도표 3 국내 통신 3사의 무선 사업 부문 매출액 감소 중



자료: SKT, KT, LGU+, 유진투자증권
주: SKT는 이동전화, KT는 무선, LGU+는 이동전화 매출의 합산임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87%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1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19.3.31 기준)